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다차원적 관점

김 경 미

양 혜 영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센터

본 연구에서는 아동 중기부터 청소년 중기까지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를 다차원적 입장에서 살펴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215명, 초등학교 6학년 215명, 중학교 1학년 194명, 중학교 3학년 173명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다차원적 설문지 2개에 응답하였다.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 설문지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등적 태도가 증가했고, 남녀모두 자신과 반대성의 문항에서 평등적 태도가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 설문지에서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성성이 계속 증가 하였으나 남성성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에 감소하였고 다른 학년 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4-6학년에는 여성성의 감소가 있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는 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은 하위척도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남학생은 평등적 태도와 여성성이 그리고 여학생은 평등적 태도와 남성성이 정적상관이 있었다. 성역할 개념 분화의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걸쳐서 남학생은 성역할 개념이 자신과 타인의 2개의 요인으로 분화되었고, 반면 여학생은 타인, 여성성 자신과 남성성 자신의 3개의 요인으로 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개념이 한 개의 단일 개념이 아니라 다중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차원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 성고정관념, 성도식, 성역할 정체감, 다차원성

성역할(gender role)이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의 기대치를 의미한다. 사회의 성역할 기준은 남자와 여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기술하며 각 성의 구성원으로 유목하고 반응하는 고정관념을 반

영한다 (Shaffer, 1999).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에 따르면 독립성, 지배성, 진취성 등은 남성적 특성으로 양육성, 의존성, 수용성 등은 여성적 특성으로 구분하여왔다. 과거 성역할에 관련된 연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을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과제(KRF-2003-074-HM0001)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김경미, E-mail: 7kkmkim7@hanmail.net

이루는 단일차원의 척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Bem(1974)이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양성성 개념을 도입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리된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제안하였다. Bem은 개인의 성역할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개발하였는데, BSRI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Bem(1981)은 성격특성(trait) 검사인 BSRI로 개인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성역할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 Spence, Helmreich, & Stapp, 1974)는 BSRI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성역할 검사도구로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을 포함한 검사이다. 그러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BSRI와 PAQ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론적 배경이 아주 다르다. PAQ를 개발한 Spence는 성역할 개념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기 때문에 성역할 개념의 일부인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만을 측정하는 PAQ와 BSRI로 개인의 성역할 전반을 측정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Spence는 PAQ와 BSRI가 성역할 태도나 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종류의 검사지(예,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 Spence & Helmreich, 1972)와 상관관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성역할 개념이 단일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Spence, 1993). 즉, 성역할개념의 일부인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만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BSRI나 PAQ로 성역할 태도나 활동과 같은 성역할 개념의 다른 측면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와 발달심리학자들도 표현적/도구적 특성과 성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성인과 아동의 경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Spence & Hall, 1996).

최근의 성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성역할 개념을 단일개념 모델로 가정하기 보다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모델을 채택하여 연구하고 있다(Huston, 1983; 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Signorella, 1999). Spence와 동료들(예, Spence, 1993; Spence & Helmreich, 1972)과 Huston(1983)은 성(gender)의 측면은 다차원적이어서 단일 개념으로 가정하고 연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Martin(1999)도 성역할 개념은 이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역동적 체계로 간주되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차원적인 성역할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개념의 다양한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Signorella 1999; Liben & Bigler, 2002). Huston(1983)은 성역할 개념을 연구할 때 다요인(multiple components)을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초기 연구가이며 Signorella와 동료들(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Signorella, 1999)은 Huston의 연구를 체계화하여 성역할 개념의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Signorella(1999)는 성역할 개념을 먼저 타인(others)과 자신(self)의 요소로 나누었고, 다시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지식과 태도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역할 개념은 지각과 선호도로 분류하였다. 타인과 자신으로 분류한 성역할 개념은 다시 직업, 활동, 특성의 세 가지 영역(domain)으로,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두 가지 성별유형(item gender)으로 분류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역할 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성역할 개념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성격특성만을 포함한 단일척도, 혹은 포괄적 척도를 사용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성역할개념을 별도로 연구하거나, 타인과 자신의 성역할 관계를 연구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일부 연구는 몇 가지 영역을 포함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격특성만을 포함한 BSRI나 PAQ를 사용하였다(예, Galambos, Almeida & Petersen, 1990; Katz & Ksansnak, 1994; 변명숙, 성옥련, 2000; 김선정, 2002; 최임숙, 2004).

먼저 타인에 대한 성역할 연구는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연구되었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유치원기간 동안 최고점에 다다르고 그 이후 초등학교 말기까지 계속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그러나 초등학교 말기 이후 청소년기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다(Ruble & Martin, 1998). 일부 연구는 성역할고정관념이 감소하고 융통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Carter & Patterson, 1982; Kohlberg & Ulian, 1974), 일부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다는 성강화설(gender role intensification effect)(Hill & Lynch, 1983; Katz & Ksansnak, 1994에서 재인용)을 주장하고 있다.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 초기까지 성역할 발달을 연구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

되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고정관념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교 2, 4, 6학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연구한 신숙영(2001)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동은 성고정관념이 점차 덜 고정적으로 되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덜 고정적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2, 4, 6학년을 연구한 이성현(1994)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대상으로 가사일, 직업, 놀이에서 고정관념을 조사한 김선정(2002)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가 낮았다. 안경희(1990)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O'Keefe와 Hyde(1983)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했을 때 유아원과 유치원 아동은 비교적 엄격한 고정관념을 보인 반면 3-6학년 사이의 아동은 보다 융통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캐나다의 종단연구인 Galambos, Almeida와 Petersen(199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7학년 그리고 8학년이 되었을 때 여학생은 평등적 견해가 계속 증가하였지만 남학생은 점차 감소하였다. Stoddart와 Turiel(1985)은 유치원, 3학년, 5학년, 8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유치원 시기에 강했고 아동 중기에 점차 융통성이 증가되다가 중학교로 전환되는 청소년 시기에 다시 고정관념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한 성역할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발달에 따른 여성성과 남성성의 변화와 성차를 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축약적 횡단계열 설계로 성역할 특성의 발달을 연구한 변명숙과 성옥련(2000)의 연구

에서 3학년의 남이는 5학년이 되면서 남성성에 안정성을 보인 반면 여아는 여성성이 낮아졌다. 정미경(1989)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성만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Galambos, Almeida와 Petersen(1990)의 종단연구에서 6학년 아동이 8학년이 되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남성성 증가가 많았고 여성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증가율이 비슷하였다.

자신과 타인의 성역할 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Edwards와 Spence(1987)는 특성과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표현성과 도구성에 대한 자기 승인(self-endorsement)과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Katz와 Ksiansnak(1994)도 성역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타인에 대해 성역할 태도를 측정된 결과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Spence와 Hall(1996)의 연구에서도 성고정관념적 태도와 표현적/도구적 성격특성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Signorella(1999)는 메타분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대부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선정(2002)의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 여성성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과 자신에 관련된 성역할 개념이 상관관계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일수도 있고, 기존 연구들이 성역할을 단일 개념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Spence, 1993; Liben & Bigler, 2002).

성역할 개념을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였던 기존연구 방식으로 다차원적인 성역할 개념을 연구하기는 어렵다. 특히 타인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신의 성유형화 정도의 관계를 연구할 때, 그리고 성역할 개념의 구조적 측면을 논의할 때 문제점은 두드러졌다 (Beere, 1990; Hort, Leinbach, & Fagot, 1991).

성역할 개념을 다차원적 측면에 가정하여 측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Liben과 Bigler(2002)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첫째, 성역할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대신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도구는 여러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질문의 형태에 따라 반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ignorella와 동료들, 1993, 1999). 연구의 내용이 개인의 성역할 지식이나 지각 정도를 탐색하는 것인지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선호도를 묻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셋째, 독립적인 하위척도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원 뿐 아니라 성역할 개념의 영역을 측정할 때도 일차원상의 양극개념이 아니라 하위척도에 대해 독립적인 개념(independent constructs)으로서의 측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연령의 피험자가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나 친숙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연령 대에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여야한다.

Liben과 Bigler(2002)는 자신들이 지적한 기존 성역할 관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성역할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기존 성역할 연구의 대부분은 성역할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거나 그 일부 특히 성격특성 척도로 성역할을 측정하였다. 반면 Liben과 Bigler의 검사지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다차원의 동일한 형식의 검사지로 측정하였고, 가능한 한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고자 했다. 따라서 각 하위척도의 측정치에 대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발달적 양상은 물론, 자신 내(within self), 타인 내(within others), 자신과 타인의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사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관점의 성역할 측정도구(Liben & Bigler, 2002)를 사용하여 첫째, 성역할 개념이 연령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발달적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성역할 개념이 여러 가지 영역(직업, 활동, 특성)과 성별 문항유형(여성적 문항, 남성적 문항)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성역할 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성역할 개념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성역할 개념이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영역과 성별문항유형 간의 성역할 개념의 관계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개념의 구조와 분화(differentiation)를 탐색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개인

이 단일의 성역할 개념을 갖고 있는지 혹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성역할 개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중기(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소년 중기(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시기가 성역할 개념의 발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이 형성된 이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성역할 개념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이며(Galambos, Almeida, & Petersen, 1990; Hill & Lynch, 1983; Katz & Ksanskak, 1994에서 재인용),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성역할 발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역할 개념의 변화가 예측되는 이 시기 동안 다차원적 입장에서 성역할 개념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발달하며 또한 자신에 대한 성역할 개념과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의 2개 초등학교 그리고 2개 중학교 학생이 설문지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4학년 215명(남: 108명, 여: 107명), 6학년 215명(남: 117명, 여: 98명), 중학교 1학년 194명(남: 103명, 여: 91명)과 3학년 173명(남: 86명, 여: 87명)으로 총 797명이었다.

예비조사

성역할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의 문항선정을 위하여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문항은 Liben과 Bigler(2002)가 성역할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며 Liben과 Bigler는 기존의 성역할 관련연구를 참조하여 빈번하게 사용했던 문항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했다(예, Edelbrock & Sugawara, 1978; Hall & Halberstadt, 1980; Williams, Bennett & Best, 1975: 모두 Liben & Bigler, 2002에서 재인용; Signorella 1999).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고정관념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7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1 = 남자에게만 해당한다. 2 = 대체로 남자에게 더 해당한다. 3 = 남자에게 조금 더 해당한다. 4 =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해당한다. 5 = 여자에게 조금 더 해당한다. 6 = 대체로 여자에게 더 해당한다. 7 = 여자에게만 해당한다.). 설문지는 직업(80문항), 활동(80문항), 특성영역(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 내에서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문항이 무작위로 섞여서 제시되었다. 전체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4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Liben과 Bigler (2002)의 분류방법을 따라 평균 3.4이하 항목은 남성항목으로 평균 4.6이상은 여성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그 사이에 위치한 항목들은 중성적 항목으로 분류하여 본 검사에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예비조사의 분석을 기초로 측정도구의 항

목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 후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한 문항에 대해서는(예, 체스) 우리나라 문화에 적절하게(예, 바둑) 대치하여 본 검사에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설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지 I과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지 II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직업, 활동, 특성의 세 가지 종류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영역은 남성적, 여성적, 그리고 중성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지는 한 영역에 25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세 영역 총 7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의 25개 문항은 남성문항 10개, 여성문항 10개, 그리고 중성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설문지의 문항내용은 대체로 같으나 영역 내에서 문항순서는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자신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묻는 설문지 I에서는 대상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승인정도(self-endorsement)를 반응하게 하였다. 직업영역에서는 각 직업에 대한 흥미 정도를, 활동영역에서 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그리고 특성영역에서는 각 특성이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전혀 하고 싶지 않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조금 하고 싶다, 매우 하고 싶다)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다.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알아보는 설문지 II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묻기 보다는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따라서 직업과 활동영역에서는 ‘___을(를) 누가 해야 하나요?’라고 태도를 묻는 질문형태를 사용하였고 ‘남자만’, ‘여자만’, ‘남여모두’의 3가지 선택 반응에서 1가

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특성영역에서는 부정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 선택 반응에서 ‘남여 모두 아님’을 추가하여 4가지 선택 반응에서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절차

상세한 지침서와 함께 설문지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고 담임교사가 각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후 회수하게 하였다.

Liben과 Bigler(2002)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먼저 제시되면 개인의 성역할 행동이 영향을 받아 그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예, Fazio, Powell, & Herr, 1983; Liben & Bigler, 2002에서 재인용)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신에 대한 설문지를 먼저 실시하고 타인에 관한 성역할 태도를 묻는 설문지를 나중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타인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신에 대한 성유형화 정도를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염려되어 자신에 관한 성역할 승인정도를 묻는 설문지 I을 먼저 실시하고 회수한 후 타

인에 대한 성역할 태도를 묻는 설문지 II를 실시하였다.

결 과

결과 분석에는 남성적 문항과 여성적 문항만 사용하였고 중성적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가지 설문지(설문지 I과 설문지 II), 3가지 영역(직업, 활동과 특성), 2가지 성별문항유형(남성문항과 여성문항)에 따라 하위척도는 12개가 생성되며, 12개의 하위척도에 대하여 개별적인 측정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I과 설문지 II의 종속변인은 Liben과 Bigler(2002)의 방법을 따랐다. 설문지 I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인으로는 영역별로 남성문항과 여성문항에서의 반응 평균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II의 결과는 영역별로 남성문항과 여성문항에서 ‘남여모두’에 반응한 비율을 각각 구하였고 이 비율은 성역할에 대한 평등적(egalitarian) 반응을 나타낸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I의 6개 하위척도

표 1. 남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초4	초6	중1	중3
I-남성적 직업	2.25(.53)	2.22(.55)	2.09(.53)	2.17(.64)
I-남성적 활동	2.79(.61)	2.81(.62)	2.70(.62)	2.60(.67)
I-남성적 특성	2.66(.51)	2.53(.49)	2.46(.52)	2.34(.49)
I-여성적 직업	1.47(.38)	1.46(.37)	1.53(.37)	1.73(.53)
I-여성적 활동	2.10(.65)	2.03(.52)	2.05(.52)	2.01(.56)
I-여성적 특성	2.26(.45)	2.16(.48)	2.50(.47)	2.50(.53)
II-남성적 직업	.33(.25)	.40(.29)	.44(.35)	.57(.38)
II-남성적 활동	.39(.27)	.45(.30)	.54(.35)	.65(.34)
II-남성적 특성	.56(.30)	.58(.29)	.61(.32)	.75(.28)
II-여성적 직업	.39(.23)	.38(.22)	.48(.31)	.54(.34)
II-여성적 활동	.39(.27)	.45(.30)	.54(.35)	.65(.34)
II-여성적 특성	.56(.30)	.58(.29)	.61(.32)	.75(.28)

표 2. 여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초4	초6	중1	중3
I-남성적 직업	1.70(.48)	1.74(.42)	1.69(.44)	1.78(.45)
I-남성적 활동	1.81(.54)	2.05(.59)	2.09(.60)	2.11(.51)
I-남성적 특성	2.48(.46)	2.27(.47)	2.32(.50)	2.3(.47)
I-여성적 직업	2.19(.52)	2.24(.50)	2.32(.50)	2.30(.49)
I-여성적 활동	2.80(.54)	2.59(.52)	2.63(.46)	2.48(.49)
I-여성적 특성	2.47(.42)	2.46(.47)	2.61(.40)	2.71(.51)
II-남성적 직업	.39(.24)	.58(.27)	.58(.30)	.68(.31)
II-남성적 활동	.37(.25)	.62(.29)	.62(.30)	.70(.29)
II-남성적 특성	.54(.29)	.70(.24)	.74(.29)	.78(.27)
II-여성적 직업	.35(.22)	.48(.25)	.54(.28)	.58(.28)
II-여성적 활동	.42(.30)	.66(.28)	.68(.31)	.76(.28)
II-여성적 특성	.49(.27)	.62(.25)	.73(.29)	.77(.29)

그리고 설문지 II의 6개 하위척도의 문항내적 일치도를 구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0.74-0.80의 범위에 해당되었다.

설문지 I과 설문지 II의 하위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남학생과 여학생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먼저 설문지 I과 II에 대해 2 x 3 x 2 x 4 (성별: 남, 여 x 영역: 직업, 활동, 특성 x 문항유형: 여성문항, 남성문항 x 학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I과 설문지 II의 변량분석표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설문지 I에서 자기 승인에 대한 평균을 분석한 결과 성별, $F(1, 749) = 9.87, p < .01$, 학년, $F(3, 749) = 3.66, p < .05$, 영역, $F(2, 749) = 1260.24, p < .001$, 그리고 문항유형, $F(3, 749) = 22.03,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사후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성별 간 평균차이를 분석해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승인이 높았다. 학년별 차이에서는 초

등학교 6학년의 점수가 다른 학년보다 낮았고 다른 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영역간의 점수를 살펴보면 특성에서 자기승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 직업이었고 세 영역 모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문항유형에 있어서는 여성문항보다 남성문항의 자기승인이 높았다.

다음으로 성별과 영역의 이원상호작용에서

표 3. 설문지 I의 변량분석표

변산원	df	F
성별(A)	1	9.87**
학년(B)	3	3.66*
영역(C)	2	1260.24***
문항유형(D)	1	22.03***
A x B	3	3.16*
B x C	6	10.54***
C x D	2	11.15***
A x C	2	39.48***
A x D	1	2814.15***
B x D	3	26.51***
A x B x C	6	2.60*
A x B x D	3	23.81***
A x C x D	6	258.68***
B x C x D	6	28.83***
A x B x C x D	6	5.67***
집단내 오류	749	137.07***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설문지 II의 변량분석표

변산원	df	F
성별(A)	1	413.43***
학년(B)	3	563.46***
영역(C)	2	418.35***
문항유형(D)	1	2.39
A x B	3	58.56***
B x C	6	5.34***
C x D	2	17.68***
A x C	2	6.10**
A x D	1	28.78***
B x D	3	2.05
A x B x C	6	1.72
A x B x D	3	1.72
A x C x D	2	17.44***
B x C x D	6	2.19*
A x B x C x D	6	1.19
집단내 오류	749	70.29***

* $p < .05$, ** $p < .01$, *** $p < .001$.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F(2, 749) = 39.48, p < .001$. 직업에서는 여학생의 승인이 높았고, 활동에서 남학생의 승인이 높았으며, 특성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승인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문항유형의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라 자기승인이 차이가 있었다, $F(1, 749) = 2814.25, p < .001$.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의 성에 해당하는 문항(same sex items)의 자기승인이 높아, 남학생은 남성 문항에 자기승인이 높았고 여학생은 여성 문항에 자기승인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자신의 성에 해당하는 문항의 승인도가 높은 것)을 영역, 성별과 문항유형 간의 삼원상호작용에서 분석한 결과 직업과 활동에서 이 경향이 강했고 특성에서 가장 약했다, $F(6, 749) = 258.68, p < .001$. 문항유형과 영역간의 상호작용에서, 특성영역에서 남성문항과 여성문항의 차이가 없었고 직업과 활동의 영역에서 남성문항을 더 승인하였다,

$F(2, 749) = 11.15, p < .001$.

학년 간 자기승인의 주효과 분석에서 6학년 초등학교의 자기승인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았는데 성별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에서 효과를 분석하면 특히 4-6학년 사이 남학생의 자기승인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F(3, 749) = 3.16, p < .05$. 초등학교 4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기승인이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 남학생의 자기 승인은 여학생보다 낮았다. 학년과 문항유형 간의 상호작용에서 초등학교는 남성문항의 자기승인이 높았지만 중학교 3학년은 여성문항의 자기승인이 더 높았다, $F(3, 749) = 26.51, p < .001$. 학년과 영역간의 상호작용에서 직업영역에서 중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보다 자기승인이 높았고, 활동영역에서 중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보다 자기승인이 낮았다, $F(6, 749) = 10.54, p < .001$. 영역, 성별과 학년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직업의 자기승인이 증가하고 활동의 자기승인이 감소한 것)은 남학생에만 해당하였다, $F(6, 749) = 2.60, p < .05$.

성별, 학년과 문항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문항유형 따라 다르게 반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F(3, 749) = 23.81, p < .001$. 여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사이에 남성문항의 자기승인은 모든 학년에서 변화가 없었다. 여성문항의 자기승인은 초등학교 4-6학년에 감소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에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남학생은 남성문항의 자기승인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에 감소하였고 다른 학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문항의 자기승인은 초등학교 4학년-중

학교 3학년 사이에 모든 학년에서 증가하였다.

영역, 학년과 문항유형간의 삼원상호작용을 보면 직업에서 초등학생은 남성문항에 대한 자기 승인이 높았고 중학교 3학년은 여성문항에 대한 자기 승인이 높았다, $F(6, 749) = 28.83, p < .001$. 특성은 직업과 비슷한 결과로, 초등학생은 남성문항에 대한 자기승인이 높았지만 중학생은 여성문항에 대한 자기승인이 높았다. 반면 활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은 여성문항에 대한 자기승인이 높았지만 중학생은 남성문항에 대한 자기승인이 높았다.

다음으로 설문지 II에서 평등적 태도를 변량분석한 결과 성별, $F(1, 749) = 413.43, p < .001$, 영역, $F(2, 749) = 418.35, p < .001$, 학년, $F(3, 749) = 563.46,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문항유형은 차이가 없었다. Duncan 사후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성별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성역할에 있어서 더 높은 평등적 견해를 보였다.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등적 태도가 점차 높아졌고, 모든 학년 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평등적 태도 점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영역별로 볼 때, 세 영역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특성에서 가장 평등적 태도를 그리고 직업에서 가장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 Duncan 사후 분석을 하였다. 성별과 영역의 이원 상호작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평등적 태도가 높았지만 특히 직업에서 평등적 태도가 더 높았다, $F(2, 749) = 6.10, p < .01$.

성별과 문항유형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여

학생이 여성문항과 남성문항 모두에서 평등적 태도의 점수가 높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과 같은 성의 문항 (same sex items)에서보다 반대성의 문항(cross sex items)에서 더 높은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F(1, 749) = 28.78, p < .001$. 즉 남학생은 여성문항에 여학생은 남성문항에 더 높은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다른 성의 문항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경향은 영역별로 차이가 난다. 영역, 성별과 문항유형간의 삼원 상호작용에서 여학생은 특히 직업에서 여성문항보다 남성문항에 더 높은 평등적 태도를 보였고 남학생은 특성에서 남성문항보다 여성문항에 높은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F(2, 749) = 17.44, p < .001$. 영역과 문항유형의 상호작용에서 활동과 특성에서는 여성문항의 점수가 높은 반면 직업에서는 남성문항의 점수가 높았다, $F(2, 749) = 17.68, p < .001$. 직업과 활동에 비해 특성에서 남성문항과 여성문항의 차이가 가장 작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등적 태도가 증가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 양상의 차이를 성별과 학년 간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다, $F(3, 749) = 58.56, p < .001$. 남학생은 중학교 1학년-3학년에서, 그리고 여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특히 평등적 태도의 변화가 많았다. 영역과 학년의 상호작용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평등적 태도가 증가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4-6학년 사이에 활동의 변화가 가장 컸다, $F(6, 749) = 5.34, p < .001$.

영역, 학년과 문항유형 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했다, $F(6, 749) = 2.19, p < .05$. 특성에서 초등학생은 모든 학년에 걸쳐 여성

문항과 남성문항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직업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은 여성문항과 남성문항 간의 평등적 태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교 3학년은 여성문항보다 남성문항에서 더 높은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상관관계분석

다음으로 하위12개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년에 따른 상관행렬표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상관행렬표를 제외하고 학년별 상관행렬표만 제시하였다. 표 5-표 8에 학년별로 상관행렬표를 제시하였고, 남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위쪽에 여학생은 대각선의 아래쪽에 제시하였다.

먼저 타인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하위 척도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 걸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타인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

표 5. 초등학교 4학년의 하위척도 간 상관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남성적 직업		.52***	.32**	.58***	.46***	.40***	-.02	-.02	-.14	.04	-.00	-.08
2. I-남성적 활동	.64***		.36***	.34***	.57***	.30**	.14	.19	-.06	.08	.20*	.02
3. I-남성적 특성	.38***	.33***		.18	.36***	.53***	.17	.22*	-.02	.10	.21*	.01
4. I-여성적 직업	.50***	.23*	.30**		.51***	.33***	-.10	-.13	-.07	-.11	-.02	-.01
5. I-여성적 활동	.39***	.43***	.38***	.52***		.49***	.05	-.01	.03	.08	.08	.06
6. I-여성적 특성	.09	-.04	.36***	.28**	-.32**		.15	.10	.19	.08	.20*	.02
7. II-남성적 직업	.13	.14	.19	-.11	.14	-.06		.77***	.46***	.73***	.65***	.34***
8. II-남성적 활동	.22*	.31***	.27**	-.12	.15	-.07	.66***		.47***	.66***	.74***	.40***
9. II-남성적 특성	.14	.11	.18	-.02	.03	.08	.35***	.40***		.50***	.44***	.82***
10. II-여성적 직업	.08	.10	.12	-.05	-.00	-.02	.63***	.56***	.29**		.55***	.40***
11. II-여성적 활동	.09	.17	.17	-.10	.13	-.20*	.60***	.75***	.38***	.60***		.39***
12. II-여성적 특성	.21*	.17	.13	-.06	.05	.08	.30**	.41***	.72***	.31***	.33***	

남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위쪽에 여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아래쪽에 제시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초등학교 6학년의 하위척도 간 상관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남성적 직업		.48***	.51***	.49***	.27***	.31***	.03	.01	.03	-.02	.02	.07
2. I-남성적 활동	.50***		.40***	.31***	.45***	.20*	.04	-.00	.09	.03	.09	.04
3. I-남성적 특성	.36***	.43***		.09	.21*	.26**	-.14	-.09	-.06	-.08	-.01	-.07
4. I-여성적 직업	.26*	.13	.02		.60***	.36***	.19*	.12	.28**	.07	.22*	.16
5. I-여성적 활동	.09	.06	-.01	.49***		.58***	.19*	.20*	.21*	.17	.34***	.19**
6. I-여성적 특성	.17	.23*	.33**	.18	.21*		.22*	.12	.17	.29**	.29**	.16
7. II-남성적 직업	.25*	.15	.17	-.28**	-.14	-.02		.66***	.45***	.67***	.57***	.36***
8. II-남성적 활동	.28**	.39	.24*	-.13	-.05	.07	.68***		.50***	.47***	.69***	.43***
9. II-남성적 특성	.10	-.03	-.07	-.07	-.13	-.08	.44***	.39***		.37***	.43***	.79***
10. II-여성적 직업	.19	.12	.13	-.20*	-.12	-.17	.73***	.64***	.36***		.47***	.33***
11. II-여성적 활동	.17	.17	.13	-.09	-.04	-.12	.67***	.75***	.54***	.70***		.41***
12. II-여성적 특성	.21*	.09	.06	-.14	-.07	-.04	.46***	.42***	.64***	.41***	.51***	

남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위쪽에 여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아래쪽에 제시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중학교 1학년의 하위척도 간 상관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남성적 직업		.44***	.30**	.52***	.42***	.15	-.05	-.07	-.09	-.08	-.07	-.07
2. I-남성적 활동	.56***		.36***	.38***	.54***	.22*	.07	.10	-.04	.04	.00	-.03
3. I-남성적 특성	.33**	.40***		.10	.23*	.61***	.08	.11	.12	.10	.19	.11
4. I-여성적 직업	.27*	.33**	.08		.62***	.13	.25*	.15	-.02	.20*	.11	-.02
5. I-여성적 활동	.22*	.34**	.04	.59		.27**	.25*	.24*	.01	.24*	.20*	.03
6. I-여성적 특성	.17	.16	.34**	.13	.16		.10	.16	.07	.11	.15	.10
7. II-남성적 직업	-.11	.07	.28**	-.19	-.11	.20		.77***	.45***	.86***	.76***	.49***
8. II-남성적 활동	-.17	.12	.27*	-.07	-.05	.13	.78***		.64***	.77***	.81***	.62***
9. II-남성적 특성	-.21	.03	.19	-.08	-.01	.08	.56***	.62***		.46***	.56***	.89***
10. II-여성적 직업	-.07	.09	.25*	-.02	-.04	.25*	.80***	.70***	.52***		.71***	.50***
11. II-여성적 활동	-.17	.01	.23*	-.01	.00	.24*	.75***	.80***	.55***	.66***		.58***
12. II-여성적 특성	-.20	.07	.16	-.05	.00	.12	.60***	.64***	.84***	.53***	.55***	

남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위쪽에 여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아래쪽에 제시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중학교 3학년의 하위척도 간 상관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남성적 직업		.56***	.38***	.71***	.44***	.37***	.24*	.23*	.04	.23*	.27*	.01
2. I-남성적 활동	.53***		.35**	.34**	.59***	.25*	.09	.12	-.09	.01	.12	-.10
3. I-남성적 특성	.41***	.47***		.13	.25*	.35**	.35**	.32**	.17	.30**	.25*	.11
4. I-여성적 직업	.39***	.18	-.07		.30**	.40***	.32**	.28**	.17	.30**	.27*	.10
5. I-여성적 활동	.01	.30**	-.04	.39***		.28*	.27**	.26*	.03	.21	.26*	.04
6. I-여성적 특성	-.01	.02	.11	.19	.26*		.34**	.33**	.34**	.28**	.36***	.33**
7. II-남성적 직업	.13	.19	.28*	-.11	-.21	-.01		.86***	.59***	.89***	.76***	.59***
8. II-남성적 활동	.10	.08	.15	-.10	-.27*	-.07	.70***		.59***	.79***	.88***	.56***
9. II-남성적 특성	-.00	-.04	.19	-.19	-.16	-.05	.50***	.51***		.55***	.57***	.85***
10. II-여성적 직업	.04	.09	.22*	-.19	-.20	-.05	.79***	.59***	.56***		.68***	.49***
11. II-여성적 활동	.02	.11	.17	-.07	-.15	.03	.63***	.80***	.42***	.52***		.58***
12. II-여성적 특성	-.15	-.09	.01	-.22*	-.08	-.03	.47***	.46***	.82***	.55***	.39***	.58***

남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위쪽에 여학생의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아래쪽에 제시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도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남성문항과 여성문항과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역할 자기승인의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복잡하다. 남학생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긍정적인 점수로 나온 결과로 미루어 자기승인에 있어서 남학생은 일관적으로 높은 점수 혹은 낮은 점수로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의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의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나 학년별로 분석하나 성역할자기승인의 경우에 있어서 남학생은 성역할 태도에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극소수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성역할 태도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은 남성문항과 여성문항 모두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기승인 정도를 일관적으로 적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성역할 자기승인의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양상은 남학생과 매우 다르다. 초등학교 4학년은 자기승인의 하위 척도 간에 15개중 2개의 상관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학생의 상관행렬표와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의 상관행렬표는 점차 의미 있는 양상으로 모여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동일 영역(같은 종류의 영역) 간 3개의 상관관계가 그리고 동일 문항유형(같은 성의 문항유형) 간 4개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동일 영역 간 2개가 그리고 동일 문항유형 간 5개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여 동일 문항유형 간의 상관관계 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역할 태도와 자기승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 가능한 상관관계 36개에서 중학교 3 학년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각 학년별로 4개-9개의 상관관계가 의미가 있고 상관관계가 의미 있는 경우만을 다시 분석해 볼 때 타인에 대한 평등적 태도와 자기승인 유형 간에 의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남학생은 평등적 태도와 반대의 성(cross sex items) 즉, 여성문항의 자기승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4개중 2개)과 초등학교 6학년(9개중 9개) 중학교 1학년(6개중 6개) 중학교 3학년(21개중 13개) 모두 평등적 태도와 여성문항의 승인도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도 전체 가능한 상관관계 36개 중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학년별로 3개-7개의 상관관계수가 의미가 있었

다). 상관관계가 의미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같이 타인에 대한 평등적 태도와 자기승인 유형 간에 의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여학생도 평등적 태도와 반대의 성(cross sex items), 즉 남성문항의 자기승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일부는 평등적 태도와 같은 성(same sex items), 즉 여성문항의 자기승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년별로 분석하면 초등학교 4학년(5개중 4개), 초등학교 6학년(5개중 3개)과 중학교 1학년(6개중 3개)은 평등적 태도와 남성문항의 자기승인과 정적관계가 있었다. 중학교 3학년(3개중 2개)은 평등적 태도와 여성문항의 자기승인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요인분석

다음으로 12개 하위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녀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eigenvalue 1이상인 경우에 요인으로 표시하였고 표 9-표 12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요인분석결과를 남녀 별도로 제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은 성역할 태도의 2개 요인과 자기승인의 1개 요인으로 나뉘고, 6학년은 성역할 태도 2개와 자기승인 2개로 나뉜다. 중학교 1학년은 성역할 태도 1개와 자기승인 2개로, 중학교 3학년은 성역할 태도 1개와 자기승인 1개로 나뉜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성역할 개념은 타인과 자신의 2개의 요인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학생은 성역할 개념 분화의 발달적 양상

표 9.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요인표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II-FO	.861	.070	.066	-.057
II-MO	.799	.323	.092	-.068
II-MA	.607	.581	-.051	.014
II-FA	.595	.461	.195	.016
II-FT	.167	.867	.077	.008
II-MT	.244	.857	.137	-.004
I-FA	.125	.096	.857	.155
I-FO	-.100	.221	.807	.158
I-FT	.371	-.110	.648	.217
I-MT	-.001	-.093	-.019	.841
I-MO	-.123	.022	.258	.807
I-MA	.037	.116	.352	.677

(I: 설문지 I, II: 설문지 II, F: 여성문항, M: 남성문항
O: 직업, A: 활동, T: 특성)

표 10.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요인표

	요인 1	요인 2
II-MA	0.886	0.240
II-MO	0.874	0.253
II-FA	0.840	0.246
II-FO	0.824	0.200
II-MT	0.824	-0.049
II-FT	0.810	-0.049
I-MO	0.067	0.867
I-MA	-0.152	0.798
I-FA	0.057	0.709
I-FO	0.192	0.677
I-FT	0.376	0.546
I-MT	0.231	0.509

(I: 설문지 I, II: 설문지 II, F: 여성문항, M: 남성문항
O: 직업, A: 활동, T: 특성)

표 11.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요인표

	요인 1	요인 2	요인 3
II-FA	.867	-.090	-.089
II-MO	.756	.220	-.287
II-MT	.746	-.224	.173
II-FT	.742	-.089	-.089
II-MA	.728	.431	-.171
II-FO	.714	.255	-.337
I-MT	.023	.803	-.082
I-MA	.170	.740	.046
I-MO	.332	.600	.252
I-FT	-.118	.468	.283
I-FO	.014	.134	.847
I-FA	-.106	-.106	.847

(I: 설문지 I, II: 설문지 II, F: 여성문항, M: 남성문항
O: 직업, A: 활동, T: 특성)

표 12.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요인표

	요인 1	요인 2	요인 3
II-MA	.864	.081	-.240
II-MO	.840	.249	-.137
II-FA	.818	.021	-.102
II-FO	.813	.122	-.078
II-MT	.754	.029	.151
II-FT	.731	-.132	.222
I-MA	.047	.813	.150
I-MT	.180	.775	.001
I-MO	.044	.753	-.039
I-FA	-.210	.144	.765
I-FT	.016	.016	.693
I-FO	-.042	.117	.491

(I: 설문지 I, II: 설문지 II, F: 여성문항, M: 남성문항
O: 직업, A: 활동, T: 특성)

이 남학생과 다르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은 2개로 나뉘어져있지만 나머지 학년은 모두 1개로 모아져 통합된다. 반면 자기승인은 영역과 성별문항이 겹쳐져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중학교 3학년에 와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분리된 2개의 요인으로 나뉜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타인, 여성성 자신,

남성성 자신의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성역할개념으로 분화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역할 개념의 변화가 예상되는 아동중기부터 청소년중기까지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입장에서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를 연구하였다. 다차원적 입장에서 제작된 검사지인 설문지 I과 설문지 II가 동일한 하위 척도를 포함한 같은 형식의 검사지이기 때문에 두 검사지 간의 보다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설문지 I과 설문지 II의 영역별 반응을 비교하면, 설문지 I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자기승인을 보였고 영역별로 볼 때 특성, 활동, 직업의 순으로 자기승인이 높으며, 여성문화보다 남성문화에서 자기승인이 높았다. 미국의 6학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분화를 연구한 미국 Liben과 Bigler(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타인에 대한 성역할 태도를 조사한 설문지 II의 결과도 설문지 I의 결과와 유사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등적 태도를, 그리고 영역별로 볼 때 특성, 활동, 직업의 순으로 평등적 태도가 높았다. 특히 직업과 활동영역에 비해서 특성영역에서 자기승인과 평등적 태도가 높았으며 남성문화와 여성문화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적었는데(설문지 I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설문지 II에서는 다른 영역과 비교해 차이가 가장 작았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Serbin과 동료들, 1993; Signorella와 동료들, 1993, Liben & Bigler, 2002). 이 결과는 여성 특성과 남성특성의 문화적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들어서 남성특성으로 여겨졌던 특성(예, 자신감이 있다)과 여성특성으로 여겨졌던 특성(예, 부드럽다)을 반대성이 보여줄 경우 부정적 반응이 작아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구적 성격 특성과 표현적 성격특성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적 특성과 남성

적 특성의 구별이 약해지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Spence와 Buckner(2000)가 1970년대 이후에 도구적 성격특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던 논의와 일관성을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타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남녀 전체로 볼 때는 초등학교 4-6학년에 평등적 태도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남녀 별로 볼 때 여학생은 초등학교 4-6학년에 남학생은 중학교 1-3학년에 증가폭이 컸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빨리 고정관념적 태도에서 벗어나 평등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자들에게 적합한 직업, 활동, 태도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각하면서 남학생들보다 빨리 고정관념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설문지 I의 학년의 변화에 따른 남성성과 여성성의 변화는 일부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변명숙과 성옥련(2000)의 연구에서 여아는 여성성이 감소하고 남성성에는 변화가 없고 남아는 남성성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변명숙과 성옥련(2000)은 이시기의 여아가 남성성의 변화가 없고 여성성만 감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융통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성 점수가 감소했다고 보기 보다는 여성성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미국 Liben과 Bigler(2002)의 연구에도 아동이 6학년에서 7학년이 되었을 때 여학생은 여성성이 감소했는데 특히 여성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Liben, Bigler와 Krogh(2001)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학생은 여성 직업의 관심도가 작아진 반면 남학생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Liben과 Bigler(2002)는 이에 대해 여학생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직업에 비해 남성직업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4-6학년 여학생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까지 여학생의 여성성의 증가와 전 학년에 걸친 남학생의 여성성 증가는 여성성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기존 연구의 해석을 다시 재고하게 한다. 물론 변명숙과 성옥련(2000)의 연구는 초등학교 3-5 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Galambos, Almeida와 Petersen(1990)은 종단연구에서 6학년이 8학년이 되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여성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기 여성성의 증가에 대해 Galambos와 동료들은 청소년 초기에 여성성 개념의 경계선이 점차 확대되어 전통적인 남성성과 전통적인 여성성의 구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한 최임숙(2004)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학교부터 대학교에 걸쳐서 여성성이 계속 꾸준히 증가했다고 보고 하였으나 여성성의 증가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여성성 증가현상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여성성의 개념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유연해지면서 남학생들이 여성적 속성을 갖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논의한 Galambos와 동료들의 해석을 적용해 볼만 하다. 그러나 몇몇 연구(변명

숙, 성옥련, 2000; Liben & Bigler, 2002)에서 보여준 여학생의 여성성 감소에 대한 결과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여학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성역할 개념의 구조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타인에 대한 성역할 태도가 모든 영역에 일관적으로 작용하는 한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상관행렬표를 보면 직업, 활동, 특성간의 성역할의 평등적 태도는 매우 높은 점수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한 영역에서 평등적 견해를 보인 아동은 다른 영역에서도 평등적 견해를 보이며 또한 여성문항에서 평등적 견해를 보인 아동은 남성문항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년의 변화에 따른 요인분석의 결과는 성역할 개념이 한 개의 단일 개념이 아니라 몇 개의 다중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차원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여학생의 결과는 다요인 모델을 제안한 Spence와 동료들(1993, 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6학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Liben과 Bigler(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남학생의 성도식은 자신과 타인의 2요인으로 분화되어 다차원적 모델을 가정하여 연구한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역할 개념 분화의 차이점을 발달적 관점으로 본다면 남학생의 성역할 발달양상이 성역할 태도나 자기승인에서 여학생에 비해 늦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성도식의 분화도 늦게 일어난 것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중학생 이후를 대상으로 성역

할 분화를 연구해야 밝혀질 부분이다.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과 자신에 대한 개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많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관계에서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남학생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여학생의 경우 평등적 태도와 자신과 반대성(cross sex items)의 자기승인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즉 여학생은 남성성이 높을수록 남학생은 여성성이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평등적 태도가 높았다. 자신과 타인의 성역할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한 Signorella(199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학생은 성역할 유통성이 높을수록 남성성이 증가했으나 여성성은 감소했다. 남학생의 경우 유통적 태도와 여성성이 정적 관계가 있었다. 정적 상관의 결과에 대해 Signorella(1999)는 타인에 대한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가 개인이 자신과 반대의 성(cross sex items)의 성역할을 자신으로 인정하는 성도식의 한 측면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성역할 개념을 연구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한 연구는 없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을 같은 하위척도를 포함한 다차원적 검사도구로 측정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역할 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다차원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고 성역할 개념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개념이 단일 개념이

아니라 다중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차원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다만 결과에서 보여준 여학생과 남학생의 발달적 양상의 차이 점은 후속연구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자기승인과, 성역할 개념의 분화와 관계에 있어서 보여준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이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설문지에 응답하는 자기 보고식의 연구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고식이 아닌 실제적 행동의 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성역할 태도나 자기승인정도가 개인의 실제적 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을지 연구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 이루어진 성역할 발달에 대한 연구였다. 종단연구를 시도한 Liben과 Bigler(2002)의 연구에서는 6학년 초에 여성특성에 승인을 많이 보인 남학생의 경우 1년 후에 성역할에서 평등적 견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남학생에게 전통적인 여성특성을 제안하게 되면 남학생이 타인에 대해서 비고정관념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인정하게 되는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해준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의 추적은 종단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정(2002).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영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현 (1994).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명숙, 성옥련(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 역할 특성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61-71.
- 안경희 (1990). 국민학교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일에 대한 인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 (1989).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특성 및 자아개념 형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임숙(2004). 중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가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Beere, C. A. (1990). *Gender roles: A handbook of tests and measures*. New York: Greenwood.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Carter, D. B., & Patterson, C. J. (1982). Sex roles as social convention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nceptions of sex-role stereotype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12-824.
- Edelbrock, C., & Sugawara, A. I. (1978). Acquisition of sex-typed preferences in pre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14-623.
- Edwards, V. J., & Spence, J. T. (1987). Gender-related traits, stereotypes, and schem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46-154.
- Fazio, H. R., Powell, M. C., & Herr, P. M. (1983). Toward a process model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Assessing one's attitude upon mere observation of the attitude obj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23-735.
- Galambos, N. L., Almeida, D. M., & Petersen, A. C. (1990). Masculinity, femininity and sex role attitudes in early adolescence: Exploring gender inten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1*, 1905-1914.
- Hall, J. A., & Halberstade, a. G. (1980).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hildren: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70-280.
- Hill, J. P., & Lynch, M. E. (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 A. C.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201-228). New York: Plenum.
- Hort, B. E., Leinbach, M. D., & Fagot, B. I. (1991). Is there coherence among the cognitive components of gender acquisition? *Sex Roles, 24*, 195-207.
- Huston, A. C. (1983). Sex-typing.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rd ed., pp. 387-467). New York: Wiley.
- Katz, P. A., & Ksiansnak, K.R. (1994). Developmental aspects of gender role flexibility and traditionality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72-282.
- Kohlberg, L., & Ulian, D. Z. (1974).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exual concepts and attitudes. In R. C. Friedman, R. M. Richart, & R. L. Vande Wiele (Eds.), *Sex differences in behavior* (pp. 209-222). New York: Wiley.
- Liben, L. S., & Bigler, R. S. (2002).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onstructs and Pathway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 (2, Serial

- No. 269). Boston, Mass: Blackwell Publishing.
- Liben, L. S., & Bigler, R. S., & Krogh, H. R. (2001). Pink and blue collar jobs: Children's judgements of job status and job aspirations in relation to sex of worke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9, 346-363.
- Martin, C. L. (199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gender effects and gender concepts. In W. B. Swann, Jr., J. H. Langlois, & L. A.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pp. 45-7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Keefe, E. S. C. & Hyde, J. S. (1983).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ex role stereotypes: the effect of gender stability and age. *Sex Roles*, 9, 481-492.
- Ruble, D. N., & Martin, C. L. (1998).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933-1016). New York: Wiley.
- Serbin, L. A., Powlishta, K. K., & Gulko, J. (1993). The development of sex typing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 (2, Serial No. 23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rooks / Cole.
- Signorella, M. L. (1999). Multidimensionality of gender schem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related characteristics. In W. B. Swann, Jr., J. H. Langlois, & L. A.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pp. 107-12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 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ta: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 147-183.
- Spence, J. T. (1993). Gender-related traits and gender ideology: Evidence for a multifactori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24-635.
- Spence, J. T., & Buckner, C. E. (2000).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44-62.
- Spence, J. T., & Hall, S. K. (1996). Children's gender-related self-perceptions, activity preferences, and occupational stereotypes: A test of three models of gender constructs. *Sex Roles*, 35, 659-691.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6-67.
- Spence, J. T., & Helmreich, R. L.,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2-44
- Stoddart, T., & Turiel, E. (1985). Children's concepts of cross-gend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6, 1241-1252.
- Williams, J. E., Bennett, S. M., & Best, D. L. (1975). Aware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5-642.

1차 원고 접수 : 2005. 7. 13
 수정 원고 접수 : 2005. 8. 21
 최종게재결정 : 2005. 8. 22

Development of Gender Schema and Its Differentiation: Multifactorial Perspective

Kyungmi Kim

Haeyoung Yang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gender schema and its differentiation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middle adolescence in terms of multifactorial theory. The 4th(n=215), 6th(n=215), 7th(n=194), 9th(n=173) grade students were given 2 gender related measures, one for sex-typing of others and the other for sex-typing of self. The result showed that the egalitarian attitude increased across grades and both boys and girls gave more egalitarian responses on cross-sexual items. Boys endorsed more feminine items as self descriptive across grades but less masculine items between the 6th and 7th grade. Girls endorsed less feminine items between the 4th and 6th grade, endorsed more between the 6th and 7th grad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since then. Students were less likely to differentiate betwee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compared to occupations and activities in both measures.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pattern that the egalitarian attitudes across domain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self endorsement of cross-sexual items. Among boys, gender attitude about others and self endorsement were separate components of gender schema. Among girls, self endorsement was further differentiated into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 result confirms the multifactorial theory of gender schema.

Keywords: gender role, gender stereotypes, gender schema, gender-role, identity, multifactorial